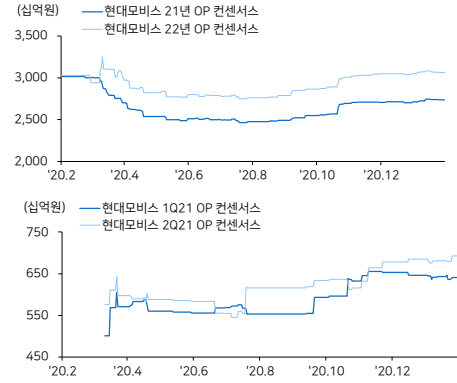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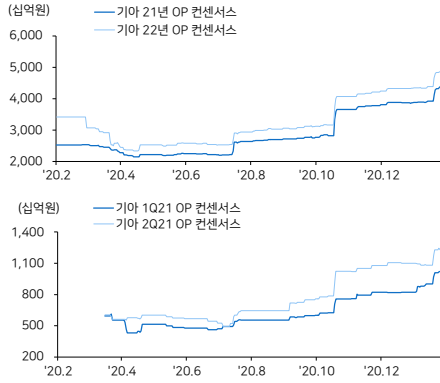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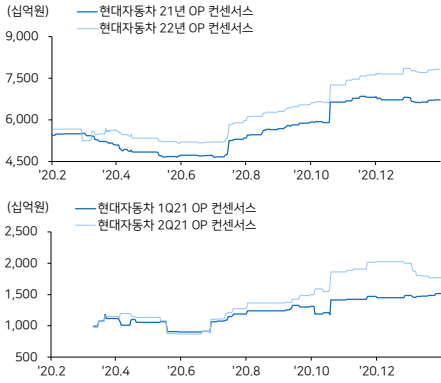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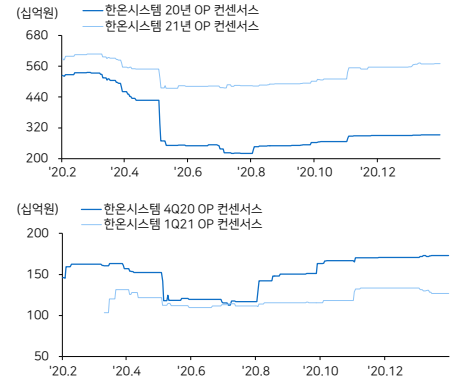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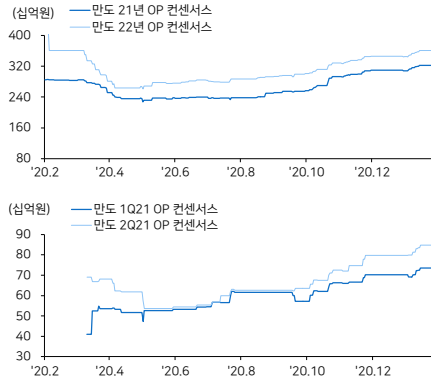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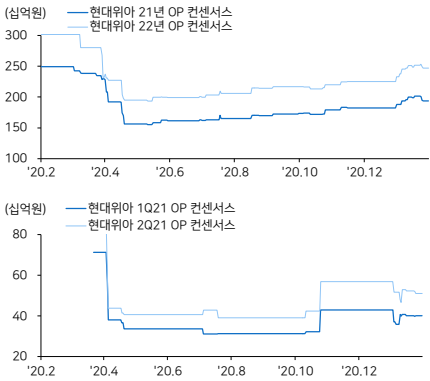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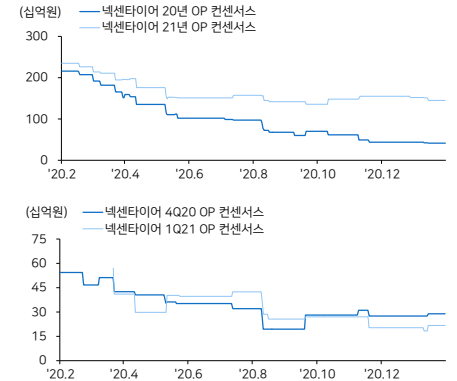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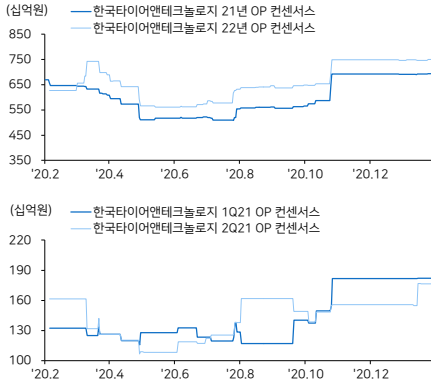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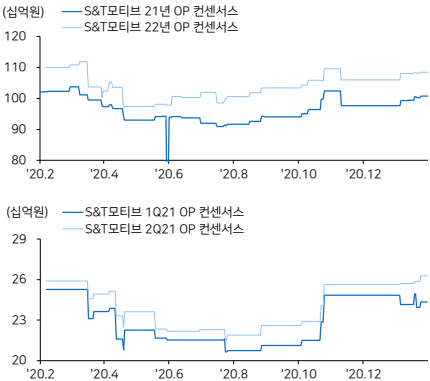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은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테슬라, 인도서도 전기차 '대전' 예고 (MTN)

현대차는 올해 인도에 신형 SUV 전지차를 출시하기로 하면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 코나EV보다 가격을 낮춘 초소형 EV SUV, AX1을 올해 인도에 출시할 예정. 인도는 13억 인구에 자동차 보급률이 낮아 중국만큼 큰 시장으로 평가됨
<https://bit.ly/3pyPj7k>

기아, K7 후속모델은 'K8'...디자인 확 달라졌다 (파이낸셜뉴스)

모빌리티 기업으로 탈바꿈을 선언한 기아가 17일 준대형 세단 K7의 후속 모델의 자칭을 K8으로 확정하고 외장 디자인에 공개함. 새로운 차명 K8에 걸맞은 실내 공간, 주행 성능, 첨단 주행 보조 기술 등을 향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임
<https://bit.ly/3qblpP>

작년 실적 선방한 타이어업체, 올해는 미 관세·소송 등이 변수 (조선비즈)

지난해 상반기 COVID19의 직격탄을 받았던 국내 타이어 3사가 하반기부터 회복해 작년과 비교해 실적 선방할 실적을 거둬. 타이어 업체는 올해 미국 반덤핑 관세의 영향과 각사의 내부 리스크를 최소화해 실적 반등을 노린다는 계획임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7/202102170272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GM·포드도 멈춰세운 미 역대금 한파...기후의 역습 시작됐다 (한국경제)

한파와 역습이 중남부 지역을 덮치면서 GM은 픽업트럭과 SUV를 생산하는 테네시·켄터키·인디애나·텍사스주 공장 문을 닫았고, 포드는 픽업트럭 F-150을 제조하는 캔자스시티 공장을 일시 중단함
<https://bit.ly/3dmni6R>

Apple Loses Key Manager From Self-Driving Electric Car Team (Bloomberg)

Apple Inc.'s self-driving car team lost one of its most test-serving leaders, Benjamin Lyon, a potential setback to the technology giant's efforts to eventually rival Tesla Inc. and others in the industry.
<https://bit.ly/3dnDWNi>

현대차 '넥스' 수소택시, 가속 이상 증상...'해결 방안 마련 중' (SBS Biz)

현대자동차와 서울시가 수소택시 보급을 위해 2년 전부터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가속을 할 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고 감속된 다음 갑자기 속도가 틀어 이상현상이 나타나 원인을 파악 중.
<https://bit.ly/3s0sivG>

미 포드, 2030년까지 유럽에서 전기차만 판매 (파이낸셜뉴스)

미국 포드 자동차가 오는 2030년까지 유럽 시장에서 팔리는 승용차를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독일 쾰른 공장에 10억달러(약 1조1089억원)를 투자해 전기차 생산 시설을 갖추어 2023년부터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임
<https://bit.ly/2NisQhR>

美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라'라, 도요타와 전략적 제휴 (로봇신문)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오라' 이노베이션이 도요타와 전략적인 제휴 관계를 맺기로 했다고 볼보그룹이 최근 보도함. 수년내 자율주행차의 대량 생산에 들어가고, 차량호출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자율주행차를 런칭할 계획.
<https://bit.ly/3qwnvCe>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